

## 사료난에 빠진 전세계 양돈산업

### Pork producers worldwide sustaining losses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이 전 세계 양돈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비단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인 양돈전문 잡지인 피그프로그레스(PIG PROGRESS)는 전 세계 양돈농가들이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9월에 중국 난징에서 열린 제 4회 IMS 세계 양돈회의에서 보다 명확해졌다고 보도했다. 피그프로그레스 최신호(PIG PROGRESS Vol.23 No.8)에 게재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및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국별 현재 상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 ■ 호주, 사료 값 상승으로 손해 위기

호주 양돈산업이 치솟는 사료곡물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호주달러(AUD) 강세까지 이어져 사상 유래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호주양돈법인(Australian Pork Limited)에 따르면, 호주 양돈산업은 매주 3~4백만달러(호주달러, 1.9~2.5백만유로) 정도의 비율로 손해를 입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돼지 1두당 평균 30달러(호주달러, 19유로)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독일, 제품 값 상승이 사료 값 극복

국제농민연맹의 프란츠 조세프 모엘러스 부회장이 최근 양돈거래인들을 위한 마켓데이 연설을 통해 사료 값 상승이 양돈농가의 생산비용을 고조시켜 양돈시장의 고비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독일의 양돈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 당 본전인 65유로 정도의 수익은 커녕 30유로도 벌지 못하고 있다”며,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생산비 상승으로 독일 양돈시장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일 양돈장의 평균규모가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비교해 경쟁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를 진정시키려면 제품가격이 사료 값에 상응할 정도로 급격히 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영국, 생산비 증가에 따른 마케팅 방안 강구

영국에서는, 양돈 농장업자들과 가공업자들이 '영국 돼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영국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는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슈퍼마켓과 축산물 직판장 등에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와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을 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료 값 상승은 지난 1년간 양돈농가들의 생산비를 30% 이상 증가시켰다. 영국양돈자조금(BPEX)에 따르면, 현재 양돈농가들은 돼지 1kg당 1.44파운드(2.06유로)를 지불하고 있지만 반면 수익은 1kg당 1.10파운드(1.59유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BPEX는 내년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2억파운드(2억8천6백유로)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BPEX 의장인 스튜어트 휴스턴은 돼지고기 1팩당 7펜스(0.10유로)와 17펜스(0.24유로) 사이로 가격이 오르면 농가들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며, 주요 식육 판매점들에게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 인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미국, 치솟는 사료사료가격이 수익성을 제한시킨다

지난 2007년 3분기까지의 미국의 양돈산업을 살펴보면, 돼지 사육두수는 많았으나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양돈산업의 42개월간 수익 기록은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축산마케팅정보센터 책임자에 따르면, 사료가격이 그동안의 수익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07년 마지막 분기에서 최소 2008년 1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리고 2분기까지 곡물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미국 양돈산업이 흑자로 전환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스페인, 좋은 작황도 사료가격을 내리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곡물 가격은 실제적으로 지난 1년간 2배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5kg의 자돈들이 20유로 이하로 판매되는 등 양돈농가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07년 초에 자돈 판매가격이었던 35유로의 절반을 겨우 넘는 가격이다.

현재 밀 사료의 가격은 킬로톤당 1년 전에 125유로였던 것이 250유로를 웃돌고 있다. 사료 생산자들은 밀을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 등의 대체 곡류를 사용하여 가격을 절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마저 빠르게 올라서 지금은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올해 작황이 좋았던 곡류조차 스페인 농장 연합회(ASAJA)의 바램대로 사료가격을 내리는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양돈**